

“나꼼수현상”이 그려내는 문화정치의 명암:

권력—대항적인 정치시사콘텐츠의 함의를 맥락화하기

이기형* · 이영주** · 황경아*** · 채지연**** · 천혜영***** · 권숙영*****

팟캐스트 프로그램 <나는 꼼수다>가 한국사회에 제기한 물음과 도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미디어양식과는 매우 차별화된 방식으로 <나는 꼼수다>는 정치사회적인 쟁점들을 개입적으로 조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성의 언론이나 담론생산자들과는 매우 차별화되고 대안적인 접근과 더불어, 구성상의 새로움을 발현한 바 있다.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발화와 강한 풍자성, 그리고 이른바 팩트와 가설 사이를 오가며 던지는 추정과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회화로 특징을 들 수 있는 <나는 꼼수다>라는 신생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부상과 위력은, 수용자대중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제도언론이 충분히 역할과 소임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국면에서, 또한 정치권력의 언론장과 공공영역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작동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나는 꼼수다>는 기성의 언론과는 매우 차별화된 방식으로 정치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었으며, 이러한 대항적인 역할은 다수의 수용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이 발화하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숨기지 않고 강하게 드러내는 관점의 표출 그리고 거칠고 파격적인 어법은 상당한 수준의 논쟁과 논란을 생성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텍스트분석과 기사분석, 그리고 서면 인터뷰의 방식을 혼용함으로써, <나는 꼼수다>의 정치사회적인 기능과 담화의 매개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성취와 한계에 대하여 성찰적인 방식으로 조명하고자 시도했다.

주제어: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 정치시사콘텐츠, 나꼼수의 역할과 한계, 맥락화하기

1. 들어가기: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론

이른바 “스마트 미디어”의 일상적인 사용과 SNS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들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와 대중문화양식의 함의 그리고 이들 현상을 매개로 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공공영역 및 정치참여와 관련된 일련의 담론과 주제들이 부상하고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28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팟캐스트(podcast) <나는 꼼수다> [이하 나꼼수] 또한 이 같은 이슈와 관심을 강렬하게 촉발시킨 매개체로 떠올랐다. 정치인이나 정치적인 사안들을 쯤췌 다루는 측면을 넘어, 특정 대상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언설들을 발화하는 일종의 “정치풍자토크쇼”의 형식으로 출현한 <나꼼수>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선거나 제도 정치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정치와 언론영역을 아우르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진 바 있다.

<나꼼수>는 권력집단이나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풍자, 직접 취재 등의 여러 형식들을 결합시켜 가며 새로운 정치언론의 파급력을 대중들에게 매우 강하게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barthes@khu.ac.kr), 교신저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drydreamer@hanmail.net)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박사수료(kajaah@khu.ac.kr)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deryck@naver.com)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ccocomakiwi@gmail.com)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berry36@hanmail.net)

<나꼼수>는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쉽게 들을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는 ‘팟캐스트’라는 신종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대중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재미와 풍자, 현실개입적인 논점의 과고들기와 직설적인 화법이 대중들에게 폭발적으로 소구되면서, <나꼼수>는 지난 1년여 동안 대표적인—혹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문제적인”—문화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주지하다시피 <나꼼수>가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후, 다수의 매체와 비평가들이 <나꼼수>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다양한 진단과 비판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보수적인 언론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나꼼수>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부정적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들 역시 존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상당한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조명을 받은 바 있고, 상당한 쟁점과 갈등을 형성한 <나꼼수>의 사회문화적인 역능과 문화정치적인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진은 <나꼼수>라는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현상과 대중들의 반응이 교섭적으로 형성하는 단면들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를 몇 가지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진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먼저 스마트 미디어에 적합한 새로운 플랫폼이자 올드미디어가 가진 구술성(orality)을 효율적으로 “전유”하는 정치·시사·풍자콘텐츠로서 <나꼼수>의 구성적인 특성을 조명한다.¹⁾ 특히 정치 패러디와 풍자의 정신이 변화된 현재의 사회정치적인 국면에서 어떠한 장르적인 특성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나꼼수>의 네 명의 진행자가 이끌어가는 독특한 발화의 전략이 어떤 효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기술하고자 한다. 둘째, 제도 언론이 “나꼼수 현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고 논해왔는지를 <나꼼수>와 관련된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경향을 중심으로 정리·제시한다. 세 번째로 “가카헌정방송”이라는 매우 도발적인 기치와 뚜렷한 목적을 내건 <나꼼수>의 “의도된 편향성”과 개입적인 “정치성”의 발현을 비판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한다. 특히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인 언어의 표출이 상당부분 순치되고 명백하게 움츠려든 현 상황에서, <나꼼수>가 촉발하는 문화정치적인 측면의 의의와 명암을 조명한다.

한편 방법론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다음의 접근방식들을 혼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나꼼수>의 구성적인 그리고 신종 미디어 콘텐츠적인 특성을 텍스트 분석의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발산하는 담화와 재현전략의 특성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나꼼수>가 다루는 정치사회적인 이슈와 논쟁을 보도하는 저널리즘 제도영역의 담론들에 대한 예시적인 정리와 상호비교의 작업을 통해서, <나꼼수>의 위상과 의의, 한계에 대한 기성언론 내부의 입장을 비교·정리한다. 세 번째로 <나꼼수>의 영향력과 성취 그리고 명과 암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비평가 판단의 심층성을 재고하기 위한 하나의 유용하고 설득력 있는 방편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관점을 서면 인터뷰의 형식을 빌려 수집하고 반영한다.²⁾ 전문가 집단에는 뉴미디어와

1) 김어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세상과 실시간 피드백을 주고받는 리얼리티 탐사보도 캐릭터쇼”라고 압축적으로 정의한다. 그가 제시한 버전은 현실 속의 쟁점들을 심도 있게 파헤치고 조사한다는 언론의 탐사보도의 기능과, 독특하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들의 조합과 이들의 퍼포먼스로 운영되는 쇼라는 예능이 결합된 정의를 내림으로써, <나꼼수>의 정체성이 여전히 복잡적이며 모호한—혹은 상호 충돌할 수 있는—부분들을 내장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겨레신문, 2012년 4월 28일자 기사 참고.

2) 이 연구의 주요 분석기간은 <나꼼수>가 등장한 2011년 4월 말부터 이른바 ‘비키니 시위’로 <나꼼수>를 둘러싼 비판과 논쟁이 가열되던 국면인 금년 2월 말까지임을 밝힌다. 이 이후 2012년 4월 총선을 전후한 <나꼼수>의 멤버인 김용민 씨의 선거 출마와 이 과정에서 불거지고 보수언론이 의제화한 ‘막말파문’과 선거 후의 <나꼼수>에 대한 ‘책임론’의 부상에 관한 매우 논쟁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그래서 이 글에서 크게 반영되지는 못했다.

SNS의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다년간 연구해 온 학계의 연구자들과, 언론사 내부의 기자들, 그리고 문화정치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진 소수의 청년층이 포함된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평가와 제언을 중심으로 <나꼼수>의 역할과 나꼼수 현상이 함축하는 명암에 대한 진전된 진단을 제기하고자 한다.³⁾

<나꼼수>의 문화정치적인 특성과 대중이 주목하는 이유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과 생산적인 비평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연구의 폭과 깊이를 고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작업은 2인의 연구자와 4인의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지는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글쓰기의 차원에서는, 관습적이고 건조한 논문쓰기의 형식을 고수하기보다는, “나꼼수현상”을 구성하는 다면적인 요인들을 탄력적으로 풀어가고, 연구자의 훈련된 관점과 판단을 개진하는 일종의 미디어 비평 스타일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활용했다. 나꼼수현상과 관련된 학문적인 성과가 아직은 거의 축적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저널리즘 영역에서 채록한 자료와 전문가들과의 서면 인터뷰를 주요한 분석의 자료로 삼아 논의와 조명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2. <나꼼수>의 양식적 특징과 정치성의 표출

다수의 국내외 매체들이 <나꼼수>가 견인하는 대중적인 열기의 배경과 사회정치적인 효과에 관해 활발하게 조명해왔으며, 언론학자와 저널리스트들 또한 <나꼼수>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명암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표명해왔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매 회 당 평균 200만에서 600여 만 명으로 추정되는 수용자들이 이 프로그램·텍스트를 다룬 받거나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있다.⁴⁾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혹은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찾고 원하는 시간에 듣는 팟캐스트 방송이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혹은 온라인상의 다양한 블로그와 공동체들을 통해서 전파·수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대중들과의 교감과 온·오프라인의 매개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나꼼수>는 기존 토크쇼의 전형성과 형식을 뛰어넘어 숨겨진 정치적인 내막이나 의혹과 관련된 담화와 수다, 그리고 날카로운 비평과 풍자를 수행하고 있다. 한 매체는 <나꼼수>의 위상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짚고 있다.

<나꼼수>는 기존 올드미디어(신문·방송) 플랫폼을 무력하게 만들며 팟캐스트 플랫폼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나꼼수>는 현재 회당 700만 건 이상 다운로드가 이뤄지며 조중동을 뛰어넘는 여론 파괴력을 갖고 있다. 과거 지상파 채널만 선택하는 수동적 시청자 대신 시·공간 제약 없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능동적 시청자가 늘어난 결과다. 수구·보수일변 프레임으로 소수의 권력층 입장만 대변했던 기존 언론에 대한 실망으로 말미암아 대안적 언론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⁵⁾

하지만 결론부에서 이들 이슈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연구진의 판단을 포함시켰다.

- 3) 이 연구에서는 <나꼼수>의 특성에 대한 텍스트분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각을 넓혀서 공공영역에서 이 프로그램이 언론과 수용자들과 만나면서 생성되는 “의미의 투쟁”과 “담론화의 전략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한편 전문가 인터뷰를 매개로, 연구진이 제시하는 관찰과 해석의 결(textures)을 보강하고자 시도했다.
- 4) 미디어오늘, 2012년 1월 18일자 기사 참조. 조선일보, 2011년 11월 1일자 기사 참고.
- 5) PD저널, 2012년 1월 9일자 기사 참고.

물론 <나꼼수>가 발휘하고 견인하는 여론 형성의 힘과 특정 국면이나 이슈와 관련한 영향력에 대한 세밀한 탐구와 평가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작업들을 필요로 하며, 이 연구의 설정된 범주를 벗어난다. 그럼에도 매 회 <나꼼수>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수 백 만의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소비·전파하고, <나꼼수>가 다룬 내용과 쟁점들을 논한다는 사실은 제도언론 내외부의 종사자와 연구자들에게 매우 놀랄만한 현상이며, 나아가 이들에게 균형감 있는 숙고와 냉정한 자기성찰을 요구한다.

<나꼼수>가 받고 있는 대중적인 관심이나 정치담론과 여론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논하기 위해서, 먼저 <나꼼수>의 양식적인 특성을 기술해보자. <나꼼수>의 구성은 4인의 고정 출연자와 초대 손님들이 등장해서 정치현안과 제도언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거나 때로는 회피하는 정치권력과 관련된 쟁점과 이면의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무엇보다도 <나꼼수>의 강점은 이러한 이슈와 쟁점들을 재치 있고 통렬한 풍자와 날카로운 해학이 깃든 입담, 매우 구체적인 정보와 추론의 제시, 그리고 떠들썩한 대담의 형식으로 끌어가는데 있다. 부연하자면 <나꼼수>는 집권세력이나 권력집단에 대해 언론이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이 우회하는 쟁점과 사안들을 매우 생동감 있게 파고들며, 직설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들을 쏟아낸다. 특히 현 집권세력을 공격하거나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BBK 문제,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관련 사안, 친인척 연루건, 저축은행 비리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안 등 권력의 이면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나 스캔들을 구체적인 사실과 가설, 그리고 유추와 추리적 상상력이 혼합된 내러티브와 개입적인 관점으로 풀어낸다. 이러한 독특한 진행의 방식과 도발적인 내용은 <나꼼수>가 제공하는 스토리텔링의 요체이자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언론은 <나꼼수>의 역할과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나꼼수>가 탁월한 면을 보이는 것은 이것이다. ‘나꼼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사실 새로운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언론들이 개별적인 팩트 전달에만 집중한 반면, <나꼼수>는 팩트와 팩트를 연결하는 고리에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나꼼수>는 특히 ‘가카’와 관련된 정보에 올인한다. 김어준 총수 자신이 강조하는 것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사건과 사건이 놓인 전체적인 구도와 맥락을 살펴보는 시각이다.⁶⁾

달리 표현하면 정치적으로 침예한 사안에 대한 통렬한 풍자와 폭로를 일종의 저갯거리의 만담의 형식으로 탈권위화시켜 논하는 <나꼼수>의 독특하고 직설적인 화법은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구성적인 요소로서 작동한다. 기존의 대담 프로그램이 양식적으로 유지하는 진중하지만 건조한 화법과 비교할 때, <나꼼수>는 보다 일탈적이며, 기존 시사 관련 프로그램의 관습적인 형식성과 톤을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진솔하고, 대담한 그리고 종종 비어가 등장하기도 하는 직설적이고 걸쭉한 화법을 적극적으로 구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꼼수>의 특성을 지적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일종의 현대판 “마당극”에 종종 비유하기도 한다. 이는 지배층이나 정치권력의 구린 점과 부조리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감응하며 통쾌함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흡인력 있는 이야기와 담화의 양식으로 풀어내는데 <나꼼수>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⁷⁾

6) 경향신문, 2011년 12월 17일자 기사 참조.

7) 이러한 결과 통상적으로 무거운 주제인 정치적인 사안과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정책 관련 사안이나

이와 함께 진행자들의 거침없는 퍼포먼스와 “역할극” 또한 <나꼼수>의 양식성을 특징짓는 주요한 장치로서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대담과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고 끌어가며 호탕한 조타수의 노릇을 하는 판지일보 총수 김어준, 훈련된 저널리스트로서 다루는 쟁점과 관련된 주요한 사실과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특종에 비견할 자료를 내놓는 균형자 역할을 하는 시사IN의 기자 주진우,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대담의 과정에서 자기자랑을—흔히 “깎때기”로 지칭되는—늘어놓고 웃음을 유발시키는 몫을 주로 맡고 있는 정봉주 (“봉도사”), 그리고 편집을 담당하면서 성대모사로 흥미를 돋구어내는 감초역할의 김용민 PD로 구성되는 4인방의 “롤 플레이”(role play)와 이들 캐릭터 간의 분업은 수용자들이 재미와 더불어 몰랐던 정치적인 이슈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 보다 진전된 관심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흡인력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⁸⁾

현업의 기자로 일하고 있는 F는 연구팀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 속에서 <나꼼수>를 끌어가는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조합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다.

제일 핵심은 역시 김어준 총수다. 시쳇말로 ‘물건’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인데 대중의 마음을 파고드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어려운 정치적 사안을 쉬운 구어체로 풀어주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 정봉주 전 의원은 소위 ‘깎때기’를 통해 흥미 요소를 배가시켰다. 주진우 기자는 특유의 취재력으로 김어준이 내러티브를 풀어갈 수 있는 소스를 제공했다. PD출신인 김용민 교수는 과거의 능력을 발휘해 맛깔스러운 편집으로 이 방송이 나이브하지 않고 세련된 이미지를 입혔다. 마지막으로 기성 언론이 놓치고 있던 이슈들을 줄기차게 지적했고 이 중 일부는 맞아떨어지면서 대중들의 신뢰를 얻었다.

비교적 거시적인 맥락으로 접근한다면, 정당제도와 제도언론의 역기능과 문제점들이 두드러지는 상황 속에서, <나꼼수>는 분노하고 좌절하는 대중들에게 카타르시스와 공감 그리고 문제의식의 전이(relay)를 가능하게 해주는 흔치 않은 “이야기꾼”(storyteller) 혹은 매우 흡인력 있는 입담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나꼼수>가 표방·지향하며 접근성이 용이한 형식과 관습적인 엄숙주의의 탈피, 그리고 일견 거칠고 편향적이지만 통렬한 (정치)비평과 현실 환기의 기능은, 기존의 토크쇼나 미디어 콘텐츠 영역의 시사/비평/고발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역능과 정서적인 반응을 <나꼼수>가 상당한 수준에서 활성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치권력이나 보수언론의 입장에서 <나꼼수>는 거칠고, 성가시고, 선동적이며, 소위 “좌파적인” 의도성을 진하게 풍기는 불편하고 껄뽀한 요주의의 대상이자, 저널리즘의 “품격”에 맞지 않는 “훼방자” 정도로 부각된다.⁹⁾ 또 다른 입장에서는 <나꼼수>의 역할과 기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권력의 비리와 무리수를 토크쇼의 형식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나는 꼼수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저공비행>, <애국전선> 등의 팟캐스트 프로그램들이 <나꼼수>의 성공과 역할을 벤치마킹하면서 연이어 출현했고, 현재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 8) 한 연구자는 “<나꼼수>의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일종의 롤플레이, 역할분담이 있다고 말한다. 전 국회의원 정봉주 씨가 정치권에서 오가는 ‘뒷담화’를 전하면, 주 기자가 과거 취재경험에서 얻은 팩트로 사건의 퍼즐을 맞춘다. 김용민 PD는 성대모사 등으로 추입새를 넣다가도 자신의 전문분야인 ‘개신교 비리’가 거론되면 퍼즐 맞추기에 동참한다. 빛나는 것은 김어준 총수의 역할이다. 사건과 사건의 연관 고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가’를 비롯한 집권세력의 미세한 움직임에서 그 ‘의도와 전개방향’을 잡아내 제시한다.” 주간경향, 2011년 12월 17일자 기사 참조.
- 9) 한 보수언론의 기사가 이러한 관점을 예시한다. “조롱과 독설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가 자리한다. <나꼼수>는 음모론을 양산하면서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진보진영

이 프로그램·텍스트가 보여주는 부분적인 선정성 혹은 일종의 “타블로이드”적인 속성과 사실과 추론의 경계를 흐리는 독특한 화법에 대한 비판과 불편함 역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진전된 논의는 3장에서 다룰 것이다.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 새로운 정치시사콘텐츠로서 <나꼼수>의 역할은 거시적으로 접근할 때, 활기와 비평정신을 상당부분 잃은 신문과 방송영역 내의 새로운 촉매제이자, 다수의 네티즌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권력-대항적인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논할 수 있다. <나꼼수>는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나꼼수>가 다룬 정치적인 주제나 추문들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고, 서로의 관점을 교환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한다.¹⁰⁾ 한편 <나꼼수>에 관한 관심은 SNS와 인터넷 공동체의 채널들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고 확산된다. 다수의 네티즌과 트위터러인, 그리고 온라인의 다양한 공동체들은 <나꼼수>가 다룬 내용을 자발적으로 전파하며, <나꼼수>가 언급하는 주제나 사건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공방의 열기가 실린 말의 흐름들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일련의 징후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시민들이 방송과 주류미디어의 한계와 무능 그리고 권력과의 야합에 실망하고 대안과 활로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등장한 <나꼼수>는, 이들 다수가 기대고 열광적으로 환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원이자 매개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스마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말과 담론들의 풍경에도 간여하는 매우 흥미로운 예시 혹은 “소리와 만담의 문화정치”를 우리는 <나꼼수> 현상에서 목격하는 것이다. 또한 대중의 신뢰성을 상당히 잃은 제도권 매체들에게는 일종의 “금기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정치권력과 관련된 동향과 추문들을 거침없이 논하고 조롱하는 <나꼼수>의 독특한 화자로서의 역할은 파급력이 적지 않은 일종의 “난장”(wild publics)의 매개체로서 기능을 일정부분 수행한다고도 사료된다.¹¹⁾

매체임을 과시한다. 이들은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구축, 갈등과 분열의 이분법을 구사한다.” 세계일보, 2011년 12월 12일자 기사 참조.

10) 흥미롭게도 한 보수언론의 조사에서도 <나꼼수>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이들 중에서 “10명 중 7명은 [<나꼼수>가] ‘흥미롭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69.4%는 <나꼼수>를 포함한 인터넷을 매개로 유포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사실이 다소 과장됐지만 정치 풍자로 흥미롭다”라고 대답했다. “무책임한 음모론을 확산시켜 문제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19.8%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2011년 12월 1일자 기사 참조.

11) Crossley et. al. (2004), Donk et. al., (2004) 혹은 이기형(2004) 등이 강조하듯이, 말의 풍경 속에서 엘리트만이 아닌 타자들이 이야기로 엮어내고 체화하는 논쟁과 감정의 표출은 언론의 왜곡과 비정상성의 상황에서, 대안을 찾고 정치현실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을 표현해낼 출구를 찾는 대중들의 관심을 상당할 정도로 담아낸다. <나꼼수>는 기존 언론이나 정치엘리트 층이 참여하는 대담과는 매우 구분되며 보다 직설적이고 체화된 차원의 의미와 감정의 표출, 그리고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감과 관심을 끌어내며, 이런 측면에서, 정치시사 관련 콘텐츠가 난장의 역할을 전인하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일정 부분 보여준다고 진단할 수 있다(경향신문, 2012년 2월 14일자 기사 참조). 여기서 징후적으로 언급한 “난장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조감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분석과 관찰의 범주가 큰 작업과 대안적인 방법론의-예컨대 담론분석이나 경험적인 연구와 같은-활용이 필요하다. <나꼼수>가 발현하는 강렬한 난장적인 요소와 이 프로그램의 수용자들이 넷과 자신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또한 어떠한 국면에서 난장의 개화와 활성화에 직접 참여·공감하고 있는지를 보다 차별화시켜 파악하려는 시도가 향후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연구팀의 질의서에 답한 현재의 언론인 Q 역시 <나꼼수>의 구성요소로서 특히 정치적인 주제들에 대한 멜로적인 (뒷)담화의 전개와 확장이라는 측면에 주목했다. “‘정치 뒷담화’는 그동안 다소 특권적인 정보접근이 가능했던 주체들에 의해 소비되어 왔습니다. 소재는 공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유통(소비)은 지극히 사적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정치 뒷담화가 새롭고 특이한 플랫폼에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나꼼수>는 공영방송을 포함한 제도권의 매체들이 정치권력의 압박 속에서 상당 부분 순치되고, 과도한 정파성과 현실의 동학에서 유리된 관(습)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하고 묻혀있던 정치적인 주제들을 거침없이 다루는 스탠스, 그리고 정치권력의 위상에 도전하는 “불온한” 태도(attitude)와 현실풍자를 전면화하는 발화의 전술을 적극적으로 매개함으로써, 다수의 수용자들을 끌어 들이는데 상당히 성공한 바 있다. 나아가서 <나꼼수>는 재미와 해학 그리고 통렬한 풍자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성세대만이 아닌 청년세대원들에게도 “정치적인 영역”(the political)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일깨우고 (재)환기하는 역할을 일정하게 발휘한다.

3. “나꼼수 현상”을 바라보는 제도언론의 시각

1)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는 <나꼼수>가 팟캐스트를 통해 첫 방송되었던 2011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2월 25일까지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와 같은 주요 일간지 6개 매체와 인터넷 5개 매체에서—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뉴데일리, 데일리안—<나꼼수>와 관련된 스트레이트/기획/해설기사, 사설, 칼럼, 인터뷰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 수집은 네이버의 언론사 뉴스 검색을 통해 “나는 꼼수다”, “나꼼수”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기사를 추출한 후, 연구의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기사들을 제외하고 총 1061개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참고).¹²⁾

<표 1> <나꼼수>에 대한 매체별 기사 보도 현황

구분	주요 일간지						인터넷 매체					합계	
	한겨레	경향	한국	조선	중앙	동아	미디어 오늘	오마이 뉴스	프레 시안	데일 리안	뉴데 일리		
총 기사 수	112	219	78	96	51	72	104	144	58	82	45	1061	
보도 유형 ¹³⁾	스트레이트/ 기획/해설	93	167	61	83	31	58	86	86	34	78	34	811
	사설/칼럼	18	25	12	13	19	13	12	20	23	4	10	169
	인터뷰	1	5	5	-	1	1	4	12 ¹⁴⁾	1	-	1	31
	기타	-	22	-	-	-	-	2	26	-	-	-	50

탐재된 것이 <나꼼수>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팟캐스트라는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 구성력을 갖는다고 볼 때, <나꼼수>는 최적의 소재와 문법이 아닐까요... 사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공적인 소재를 술자리 또는 골방에서 나누던 대화 방식을 유지한 채 공적 장으로 이전시켰는데, 그 장 자체가 광장에 골방을 재현한 것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었고... 말하자면 광장으로 나온 골방 담화가 대단히 폭발적인 미학적 소구를 형성한 것이 아닐까요. 거기에 현 정권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외설성’도 소재로서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12) 이 기사분석은 <나꼼수> 현상에 대해 제도언론이 어떠한 보도의 관점과 내용을 보여주는지를 국면적으로 세밀하게 논의하기보다는 제도언론의 전반적인 보도양상을 조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13) 보도유형은 크게 4가지로—스트레이트/기획/해설, 사설/칼럼, 인터뷰, 기타—구분하였는데, 이 중 스트레이트/기획/

먼저 나꼼수와 관련된 매체별 보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기사수와 보도유형에서 보수성향의 매체와 진보성향의 매체 간에 상당히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체별 총 기사수의 경우, 진보성향의 매체들인 <한겨레>, <경향신문>과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의 경우 최소 103개에서 최대 219개로 집계된 반면, 대표적 보수매체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데일리안>, <뉴데일리>는 최소 45개에서 최대 96개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치 차이는 매체 성향에 따라 <나꼼수> 현상에 대한 주목 정도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보매체의 경우 <나꼼수> 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소개·쟁점화하고, 담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역할과 면모 그리고 정당성을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에 반해 보수언론은, 수용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나꼼수>현상에 대해 초기에는 의도적으로 주목하지 않거나 혹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대중적인 관심들이 커져감에 따라 취재에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꼼수>에 대한 대중적인 호응이나 열기를 조명하는 작업은 양적으로 진보매체에 비해 상당히 적으며, 인터뷰나 심층 보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2) <나꼼수>에 대한 각 매체의 시기별, 주제별 보도 양상

<나꼼수> 현상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매체의 시기별 <나꼼수> 관련 보도의 현황과 다루고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매체의 월별 보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4월 28일 <나꼼수>가 팟캐스트를 통해 처음 방송되기 시작한 이후 방송 초기에는 각 매체들이 <나꼼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목하지 않았음을 인지할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나꼼수> 관련 월별 매체 보도 현황

구분	주요 일간지						인터넷 매체					합계
	한겨레	경향	한국	조선	중앙	동아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안	뉴데일리	
월별 기사 수	2011년 5월	-	-	-	-	-	-	-	-	-	-	0
	6월	-	-	-	-	-	-	-	-	-	-	0
	7월	-	-	-	-	-	-	2	2	-	-	4
	8월	2	1	1	-	-	-	5	1	-	-	10
	9월	3	6	2	-	-	-	4	1	-	-	16

해설의 경우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 외에 스트레이트성 해설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함께 묶어 분류하였다. 인터뷰의 경우 <나꼼수> 진행자 인터뷰 외에 <나꼼수>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뷰 형식은 대면, 전화, 서면 인터뷰 등이다. 기타의 경우 <나꼼수>와 관련이 있으나 위의 3가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사로, 예컨대 포토기사(경향), 서평(미디어오늘), 한컷뉴스/그림뉴스(오마이뉴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4) <오마이뉴스>는 <나꼼수> 진행자 인터뷰를 비롯해 <나꼼수>팀 미국순회강연회 자원봉사자(미국인) 인터뷰, 정봉주 전 의원 구속수감에 대한 변호사 인터뷰, 군의 “중복 앱” 삭제 지시에 대한 인권센터 관계자 인터뷰, ‘비키니시위’ 관련 여성단체인사 인터뷰 등 <나꼼수>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나꼼수> 진행자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인의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전하며 매우 적극적인 보도 태도를 취한 바 있다. 한편 보수언론들 중에서 중앙일보의 경우 <나꼼수>에 대한 첫 보도 이후 약 3개월 동안 전체 기사의 절반 정도를 사설이나 칼럼으로 채웠다는 점이 흥미롭다. 보수매체들 중에서 중앙일보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꼼수> 현상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별 기사 수	10월	18	42	13	12	4	8	28	40	12	13	9	199
	11월	18	58	10	20	9	14	24	24	13	13	10	214
	12월	31	49	23	29	16	20	26	37	19	31	15	296
	2012년 1월	16	21	5	16	7	7	4	12	5	12	4	109
	2월	24	42	23	19	15	23	11	27	9	13	7	213

그러나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나꼼수>에 대한 소문과 관심이 빠르게 전파·확산되고, 방송 시작 두 달여 만인 7월 초 <나꼼수>가 국내 전체 팟캐스트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한 이후에, <미디어오늘>이 <나꼼수> 진행자 중 한 명인 김용민 PD의 칼럼을 제공했으며, <나꼼수>와 관련된 기사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¹⁵⁾ 이후 <한국일보>가 일간지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카께서...” 시사풍자 대담 인터넷 방송 나꼼수 열풍이라는 기사를 제공했다(8월 1일). 이어서 <한겨레>, <경향신문>에서도 각각 8월 8일과 18일에 <나꼼수>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제도언론은 이후 2011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보도와 분석 기사를 제공했으며, 이른바 “비키니 시위”와 이 이슈를 둘러싼 쟁점들이 돌출된 1월 하순과 2월 중순 사이에 다시 상당히 활기차게 나꼼수현상을 다루게 된다.

한편 이 시기의 경우, 논조와 조명 그리고 이슈화의 방식에서 2010년 후반부의 보도양식과는 일정하게 차별화된 변화를 보인다. 예컨대 진보언론 내부에서도 <나꼼수>의 어법과 이 프로그램 속에 담긴 “젠더 코드”의 편향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보다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의 공동체와 여성단체들의 반응을 매개하게 된다 [다음 섹션 참고]. 한편 나꼼수현상의 함의나 대중적인 영향력과 관련해서, 다수의 매체들이 2011년의 주요하고 대표적인 미디어와 문화영역의 현상으로 <나꼼수>를 선정하기도 했다.

<표 3> 매체성향에 따른 최초 보도 기사 특징 비교

구분	진보/중도매체	보수매체
기사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꼼수> 현상 및 관련된 이슈들에 주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꼼수> 현상 자체를 주목하기 보다는 여야 관련 인물과 연결 지어 다룸 <나꼼수>에 대해 비판적 견해 표명
기사제목 주요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꼼수 열풍”, “나꼼수 매력”, “초대박 비결”, “가카 헌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파지지자들”, “편파”, “내 맘대로 언론”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미디어 채널 혹은 양식으로서의 팟캐스트에 대한 소개 <나꼼수> 제작 의도 소개 <나꼼수> 진행방식 및 진행자 소개 <나꼼수> 인기배경에 대한 설명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강조, <나꼼수>의 편향성, 사실성 결여, 책임성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보도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레이트성 해설기사(청취자 발언, 언론학계 교수 인터뷰 포함) 외부칼럼(<나꼼수> 진행자 기고 칼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설 스트레이트 기사

15) 당시 국내 전체 팟캐스트 1위였던 ‘두시탈출 컬투쇼’와 뉴스·정치 분야의 1, 2위를 다투던 ‘손석희의 시선집중’, ‘박경철의 경제포커스’를 제치고 2011년 7월 7일 <나꼼수>는 국내 팟캐스트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나꼼수>는 이를 기점으로, 8월 8일에는 미국 팟캐스트 뉴스·정치 분야 1위를, 8월 22일에는 미국 팟캐스트 전체 1위를 차지하며(김용민, 2011), 국내는 물론 국외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나꼼수>에 대한 언론보도는 최초 보도가 시작된 이후 약 3개월여 동안 주로 진보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0개의 기사 중 50 퍼센트 정도가 <나꼼수>의 열풍과 이에 대한 진단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기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기사제목에서는 “나꼼수 열풍”, “나꼼수 매력”, “초대박 비결”, “가까 현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보도유형은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 칼럼, 인터뷰 형식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는 독자들이 상대적으로 생경한 <나꼼수>의 특성인 팟캐스트 방식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나꼼수>가 팟캐스트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나꼼수> 진행방식의 특징 및 진행자들에 대한 소개 등을 다룬 기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거침없다. 판지일보가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가 네티즌과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31일 현재 나꼼수는 아이폰으로 방송을 내려 받아 들을 수 있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일보, 2011년 8월 1일자 기사).

지난 4월28일 팟캐스트에서 첫 회를 시작한 <나꼼수>는 김어준씨와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각하 현정방송’이라는 콘셉트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을 쏟아내는 프로그램이다(한겨레, 2011년 8월 8일자 기사).

또한 제도언론의 일부는 <나꼼수>의 인기의 배경과 관련해서 청취자와 학계, 언론계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 인터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도 했다.

<나꼼수>의 열혈팬이라는 회사원 박소영(24)씨는 “처음에는 너무 웃겨서 듣게 됐는데 들을수록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뉴스의 뒷얘기를 풀어주는 것 같아 귀가 솔깃해진다”고 말했다(한국일보, 2011년 8월 1일자 기사).

원용진 서강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부)는 “대중은 모든 권력에 궁금증을 갖는데, 현 정부 출범 뒤 주류 미디어가 이런 호기심을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나꼼수>의 인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한겨레, 2011년 8월 8일자 기사).

이처럼 <나꼼수>에 대한 언론보도는 <나꼼수>가 견인한 대중적인 인기로 주목하면서, <나꼼수>가 지닌 구성적인 특성과 더불어 ‘현 정부의 실정’과 ‘기존 제도언론의 역할 부재’ 등의 사회정치적인 배경을 <나꼼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킨 주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2011년 7월초 <나꼼수>에 대한 최초 보도가 나간 이후 약 3개월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더불어 인터넷의 보수매체에서 <나꼼수>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처럼 <나꼼수> 현상에 대해 대중과 진보매체의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에 보수매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나꼼수> 현상에 관하여 보수언론들이 의도적인 거리두기와 무시하기를 시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수언론에서 <나꼼수> 관련 기사는 인터넷 보수매체인 <뉴데일리>와 <데일리안>에서 10월 6일 처음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일간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경우 10월 중반에 관련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직접 취재 기사가 아닌 <나꼼수> 열풍을 다룬 외신보도 내용¹⁶⁾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했고, <중앙일보>¹⁷⁾를 제외한 다른 보수매체에서는 <나꼼수> 열풍이나 대중적인 관심과 관련된 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또한 <데일리안>을 제외한 4개 매체의 최초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나는 꼼수다> 혹은 <나꼼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편파’, ‘내 맘대로 언론’, ‘좌파 지지자들’ 등의 부정적인 표제어와 단정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대통령 사저 문제를 보도한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가 뜨고 있다. 나꼼수가 알려진 건 사저 보도 때문만이 아니다. 편파중계보다 더 편파적인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11년 10월 19일자 사설).

‘내 맘대로’ 쓰고, 말하고, 칭찬하고, 비판한다. 말 그대로 ‘피 말리는’ 기사 검증과정도 없이…(동아일보, 2011년 10월 14일자 사설).

<나꼼수> 현상과 관련된 보수언론들의 이후 보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현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보다는 특정한 가치의 판단과 입장의 개진이 강한 사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나꼼수>를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문제적인” 주체로 정의하고, 편향성과 선정성, 사실과 허구의 경계 흐리기, 경박스러운 언어 표현 등의 문제점들을 주로 지적·비판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이들은 ‘음모론’, ‘괴담’, ‘선전·선동’, ‘조롱거리’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꼼수>가 “음모론과 괴담의 매개체”이며, 대중을 상대로 한 진실하지 못한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나꼼수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화병(火病)을 돋우기로 작심한 방송이다. 진행자 네 명이 초대 손님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조롱거리로 삼는다. 정식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통신 규제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언론에 요구되는 공정성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언론의 기준으로 보면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취재원들이다(조선일보, 2011년 11월 11일자 사설).

대통령과 집권당을 조롱하며 정치를 개그로 만든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킁킁거리게 되고, 듣다 보면 편향된 그들의 정치인식을 받아들여게 된다(중앙일보, 2011년 10월 19일자 사설).

이처럼 보수매체들은 <나꼼수>에 대해 저널리즘의 규범에 미달하는 측면과 편향성의 문제를 주로 제기했으며, 전술적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비판하며, 의제화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편향성과 관점의 오류 등을 주로 부각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나꼼수>에 대해 부정적인 정의내리기를 시도한 것이다. 한편 일부 진보매체는 <나꼼수>의 역할과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언론으로서의 책임론이나 선정성¹⁸⁾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일정하게 표명하기도 했다.

16) 2011년 11월 2일 <뉴욕 타임즈> 국제판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의 1면 톱기사에서 “‘By Lampooning Leaders, Talk Show Channels Young People’s Anger’”라는 제목으로 <나꼼수> 열풍을 보도했다. IHT는 <나꼼수> 인기이유에 대해 “생활비 상승과 불안한 일자리 전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정치적 자각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 주류 보수 언론에 대한 불신이 반영됐다”고 조명했다.

17) <중앙일보>는 2011년 10월 22일자 한 교수가 기고한 외부칼럼을 통해서 “나꼼수현상”과 인기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

18) 예를 들면 <나꼼수>의 선정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 10월 30일 <나꼼수>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비비케이(BBK) 사건 관련 인물 중 한 명인 에리카 김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한 “눈 찢어진 아이” 발언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논객인 진중권이 트위터에 이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매체들이 이 사안을 중심으로 <나꼼수>의 선정성에 대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 2011년

정작 주목할 건 성격상 보완적 매체인 <나꼼수>가 웬만한 주류 미디어 이상으로 나날이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현상이다. 세상을 음모적 시각으로 재단하고 무책임한 서사와 조롱, 편파성이 정상인 양 받아들이게 하는 건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사회에도 도움 되지 않는 독이다...그러니 이만큼 영향력이 커졌으면 사회에 대한 다양한 책임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한국일보, 2011년 11월 2일자 칼럼).

[한 연구자는] 편파성과 선정성은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했다. “권력에 의해 순치된 기존 미디어가 공론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꼼수’는 편파적이기는 하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대신 쏟아내고 있다...다만 ‘나꼼수’의 일부 선정적 측면은 공론장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진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한겨레, 2011년 11월 6일자 기사).

<나꼼수>에 대한 언론의 보도양상은 9월 말을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SNS·웹 심의전담팀을 신설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표 이후 이 사안과 관련된 기사들이 급증했다.¹⁹⁾ <나꼼수>가 새로운 미디어 채널인 팟캐스트를 통해 전파된다는 점과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기반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표는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 집단들의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검열하거나 억압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왔다. 이에 따른 논란이 증폭되면서 본격적으로 <나꼼수>의 정치적 영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려는 기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 성향에 따라 <나꼼수>를 포함한 SNS와 스마트폰 앱에 대한 심의의 문제를 놓고 찬반의 명확한 입장이 구분됨과 동시에 <나꼼수>에 대한 정치적 태도 또한 양분되어 나타났다.

또한 10월부터는 <나꼼수>에 의해 촉발된 정치·사회적 이슈들이 폭넓게 대중의 호응과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꼼수>와 관련된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나꼼수>팀은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정부의 한미 FTA 비준 처리 문제가 쟁점화 되던 시기에 야권 후보 지지 활동이나 한미 FTA 비준 반대를 위한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 등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매우 직접적인 정치적인 개입과 활약상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여론과 사회적인 의제설정에 있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박원순 후보에 맞서는 여당의 나경원 후보에 대해 <나꼼수>의 본격적인 폭로와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상황에서 <나꼼수>에 대한 언론보도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10.26 서울시장 선거 이후 선거결과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등장했고, 이 과정에서 <나꼼수>의 역할과 정치적 효과를 조명하는 기사들이 뒤이었던 점도 <나꼼수> 관련 보도가 증가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10월 31일자 기사, 데일리안, 2011년 10월 31일자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0월 31일자 기사, 한겨레, 2011년 11월 6일자 기사 등 참고.

19) 2011년 12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담 심의할 조직인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했다.

<표 4> <나꼼수> 관련 주요 주제별 매체 보도현황

구분	진보/중도성향의 매체							보수성향의 매체					합계	
	한겨레	경향	한국	미디어 오늘	오마이 뉴스	프레 시안	소계	조선	중앙	동아	데일 리안	뉴데 일리		소계
<나꼼수> 열풍 소개 및 인기 이 유 관련 기사	10	6	10	10	2	6	44	1	2	1	1	-	5	49
<나꼼수> 현상 관련 SNS의 영 향력 관련 기사	5	8	2	6	2	7	30	8	-	3	-	2	13	43
<나꼼수>의 편파성 책임성 사실보도 문 제 등 관련 기사	2	1	5	5	-	3	16	10	9	8	2	6	35	51
방통위 SNS, 앱 심 의 추진 관련 기사	9	6	4	9	4	2	34	3	2	-	2	-	7	41
박원순 후보지지 활동 관련 기사	3	2	1	6	15	2	29	4	-	1	2	2	9	38
나경원 후보 비리 의혹 관련 기사	7	15	1	4	8	8	43	4	-	4	6	7	21	64
선관위 홈페이지 디 도스 공격 관련 기사	5	8	7	4	4	2	30	6	1	6	7	1	21	51
한미 FTA 비준원천 무효 집회 관련 기사	8	19	3	3	13	4	50	4	2	2	2	1	11	61
정봉주 전의원 BBK 관련 기사	8	22	9	9	16	5	69	19	9	13	11	6	58	127
비키니 시위 관련 기사	16	32	18	6	21	3	96	20	13	19	11	8	71	016 7
군 <나꼼수> 등 중복 앱 삭제 지 시 관련 기사	8	7	4	1	3	5	28	-	2	1	1	-	4	32

<나꼼수>에 대한 언론보도의 경향은 2012년 1월 말 이른바 ‘비키니 시위’와 관련된 논쟁이 촉발되
기 전까지는 진보매체와 보수매체 간의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 차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보도의 경향은 <나꼼수>에 대한 인지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태에서, 8월과 9월 <한겨레>
와 <경향신문>이 이끈 초기 관심의 표출 단계를 거쳐, 10월 이후 전개된 정치국면에서 본격적인
관심의 확산과 증폭된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예컨대 10월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한미FTA 일방 처리 등 매우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이 의제화되고 여론이 요동을
치는 과정에서, <나꼼수>가 상당할 정도로 관여했고, 동시에 보수매체의 강력한 공격과 비판적인
보도가 집중되었다. <나꼼수>는 팟캐스트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정치적 상황과 여론지형, 그리고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의 국면에서 매우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향력과 위력을 드러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네티즌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지지의 대상이자, 보수언론에게는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3) ‘비키니 인증샷’ 사건과 <나꼼수>에 대한 비판과 공격의 분화

2012년 1월 말 발생한 ‘비키니 인증샷’ 사건²⁰⁾은 <나꼼수>를 둘러싼 이전까지의 보도 양상이나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반응과 태도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했다. 진보매체와 보수매체 모두 보도의 양상이 달라지고, 진보진영 내에서도 <나꼼수>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나꼼수>는 반 이명박-반 한나라당의 정치세력을 결집시키고, 다른 어떤 매체나 정치집단보다 더 큰 언론-정치적 영향력을 발생시키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치진영의 ‘공적’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비키니 사진’ 사건은 이 같은 대립구도를 다각화시키고 진보진영 내부의 논쟁과 대립을 야기하면서, <나꼼수>에 대한 언론보도의 경향 또한 상당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비키니 시위’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매체들은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보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보도 양상은 각 매체별 기사 제목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일자별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매체 성향과 상관없이 스트레이트성 기사 위주로 비슷한 제목을 통해 보도하고 있다.²¹⁾ ‘비키니 사진’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경향신문>은 전문가 의견과 함께 누리꾼들의 반응을 포함한 다수의 해설기사를 실었으며, 기사의 전반적인 논조는 비판적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²²⁾ <한겨레>는 보도 숫자만으로 보면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나, <경향신문>이 ‘비키니 시위 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의 쟁점화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나꼼수>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보도 양상과는 달리 비판적 의견의 개진을 활발히 수행한데 비해, <한겨레>는 사실이나 칼럼 등을 통해서 비판적 의견과 함께 <나꼼수>의 역할론을 조율(려)는 관점들을 비교적 균형 있게 제공했다.²³⁾

한편 보수매체의 경우 <나꼼수>에 대해 그동안 지적해 온 문제들을 환기시키면서, 이와 함께 <나꼼수>의 부정적인 면모와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비판하는 보도를 강화했다.

‘비키니 인증샷’ 사건에서 갑자기 난리 난 것처럼 떠들 이유가 없다.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 “눈 찢어진 아이(불륜 사생아)를 조만간 공개한다”고 날릴 때도 내부에서 잠잠했지 않은가. 막말과 야유, 폄수, 안하무인은

20) 요약하자면 <나꼼수> 진행자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의원이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다. 이후 정 전 의원의 석방 촉구를 위해 한 여성지지가 인터넷 게시판에 비키니를 입고 가슴 부위에 ‘가슴이 터지도록 나와라 정봉주’라는 시윗말을 쓴 사진을 게재한 후, 이에 대해 <나꼼수> 진행자들이 던진 성적인 표현들이 문제되면서 불거진 사건을 말한다.

21) 1월 30일자 기사: “‘가슴이 터지도록...’ ‘나꼼수’ 비키니 논란 가속”(한겨레), “마초? 자유?... 나꼼수 비키니시위 논란”(한국일보), “나꼼수 ‘대박... 코피 조심하라’, 공지영 “매우 불쾌... 사과해야””(조선일보), “나꼼수 ‘비키니 사진’ 논란 사과하는 게 옳다”(중앙일보), 2월 2일자 기사: “‘나꼼수’ 방송서 ‘비키니 구설수’ 해명 안해”(경향신문), “‘비키니 논란’ 나꼼수는 말이 없었다”(한국일보), “‘비키니 논란’ 해명 없던 ‘나꼼수’ 방송”(동아일보) 등의 기사 참고.

22) 특히 <경향신문>은 ‘비키니 시위’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첫 기사 보도 다음날인 1월 31일 1면 “[뉴스분석]주류가 된 나꼼수, 시험대 오르다”와 3면 “‘나꼼수’ 비키니 시위’에 대한 성인식이 문제였다”의 제목으로 머리기사를 실은데 이어, 2월 6일 역시 1면 “여성회원 60만 삼국카페 ‘나꼼수 지지 철회’ 성명”과 3면 “나꼼수의 음모론·대안언론 한계 논란 확산”이란 제목의 머리기사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나꼼수의 음모론·대안언론 한계 논란 확산”이라는 제목의 3면 머리 기사를 통해 ‘비키니 시위’로 촉발된 <나꼼수> 논란에 대한 8명의 전문가 논평을 내놓으며, <나꼼수>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일정하게 강화했다.

23) 2월 9일자 칼럼-“‘나꼼수’ 비키니 논란을 보는 두 시선”, “‘나꼼수 비키니 사태’에 대해서: 싫어요/좋아요”, 2월15일자 칼럼-“[조한혜정 칼럼] 나꼼수, 진화를 기대한다.”

이런 부류들의 일상이었지 않은가(조선일보, 2012년 2월 9일자 사설).

<나꼼수>는 ‘권력의 치부를 시원하게 까발린다’는 콘셉트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이들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대상은 잘못을 하고도 감추려는 기득권층이었다. 하지만 그 권력자들의 꼼수를 이젠 나꼼수가 답습하고 있다. ‘비키니 시위’ 발언이 성희롱이었다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어두운 진실을 파헤친다면 자신의 불편한 진실은 숨기려 한다면 그동안 외쳐온 주장의 정당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동아일보, 2012년 2월 3일자 사설).

‘비키니 인증샷’ 사건은 <나꼼수>에 대한 페미니즘 진영이나 여성네티즌들의 강한 비판,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섹슈얼리티와 여성성의 문제와 관련된 진보진영 내의 시각의 분열이나 대립의 상황을 낳았다. 이후 <나꼼수>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논쟁들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여성단체나 삼국카페 등의 온라인 여성카페를 중심으로 비키니 사진 속 여성에 대한 <나꼼수> 진행자들의 성적 발언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과 사건의 논란 속에서도 공개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나꼼수> 진행자들의 태도를 비난하는 측면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었다.

이택광 교수는 “비키니 사진을 올린 것 자체보다 이것을 본 <나꼼수> 진행자들과 팬들이 성적인 발언과 댓글을 올리면서 불쾌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문제”라며 “사과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했다(경향신문, 2012년 2월 5일자 기사).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의 경우 1월 31일자 칼럼 “‘비키니 응원’… 침묵하는 민주당 여성지도부”와 2월 1일자 6면 머리기사인 “비키니 시위’엔 침묵… 두 얼굴의 여성단체”, <동아일보>에서는 2월 8일자 기사 “‘나꼼수 비키니’,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반응은?”과 같은 기사를 통해서 대립구도를 더욱 부추기는 방식의 보도 태도를 보였다.

평소 성희롱·성추행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여성 권익주의자)들이 ‘정봉주 구하기 비키니 인증샷 논란’에 대해 기묘한 침묵에 빠져 있다. …여성단체들의 이런 반응은 2010년 7월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된 때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등 30여 곳에서 강 의원의 제명이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요 여성단체 대부분이 성명서를 냈다(조선일보, 2012년 2월 1일자 기사).

이들 매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여성단체들이 <나꼼수>와 관련된 사안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색깔에 따른 편 가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한] 교수는 “여성운동은 이념적으로 진보 진영과 통하기 때문에, 같은 성희롱 사안을 두고도 내 편과 네 편을 나눠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이 같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진보·좌파 진영의 ‘상징’이 된 정봉주 전 의원과 <나꼼수>를 비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12년 2월 1일자 기사).

또한 언론 매체들 중 일부는 진보진영 내에 생성된 ‘분열’이나 이 사건을 매개로 불거진 논점들을 비판적으로 부각시켰다. 이 계열의 기사들은 <나꼼수>의 강력한 지지세력이나 주변의 우호세력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열과 이견의 측면과 함께 반 이명박 정서를 기반으로 뭉친 <나꼼수> 팬덤의 성찰적이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²⁴⁾

삼국카페는...“삼국카페 회원을 더 중요한 일(가카퇴진)을 도모하는 대단한 진보인사(나꼼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를 고작 그런 일(여성인권문제)로 분열시키려는 일부 보수언론의 알바로 몰며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본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면서 “우리를 동등한 동지라고 여긴다면 최소한의 소통은 이루어져야만 했다”...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 대의라는 이름 아래 침묵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우리는 ‘반쪽 진보’를 거부하며, <나꼼수>에게 가졌던 무한한 애정과, 믿음, 동지의식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12년 2월 6일자 기사).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꼼수>의 역할과 가치를 여전히 옹호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의견을 담은 지면들도 등장했다.

하지만 아무리 앞뒤를 캐 봐도 <나꼼수>들에게서 성희롱·성차별의 의도를 찾아낼 길이 없다. 그들은 권력자도 주류도 아니며 동료는 수감되었고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중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를 상황에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다. 속에서 피눈물이 나도 그들은 낄낄거리고 악악대는 것으로 권력에 맞선다. 불쾌감을 느낀다는 업숙주의자들에게 굴복해서 위선적인 혹은 위악적인 거짓 사과를 한다면 <나꼼수>가 더 이상 온전한 <나꼼수>일 수 있겠는가. 다양한 진보의 대오에서 <나꼼수>는 ‘지하실’을 담당하는 한 축일 뿐이다. 그들의 언행이 불쾌하다면 외면하고 무시하면 될 일이다(한겨레, 2012년 2월 9일자 칼럼).

마지막으로 ‘비키니 시위’ 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나꼼수>의 역할 및 정체성의 문제를 복수의 각도에서 진단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진보적인 매체들도 기성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동안 <나꼼수>가 보여준 일련의 대항적인 혹은 대안적인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가시적으로 확인된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언론으로서의 책임성이나 표현방식에 대해 책무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어느덧 정치권과 기성 언론이 주목하고 경계하는 ‘힘’을 갖게 됐다. 그러나 <나꼼수>의 방송 내용이 여전히 ‘B급 정서’로 가득 차 있다는 데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냉소와 조롱을 무기로 한 비주류 언론에서 영향력 있는 주류 미디어로 부상했음에도 걸맞은 책임과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경향신문, 2012년 1월 31일자 기사).

나꼼수는 정규 방송이 아니며 패러디 등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24) 한 문화학 전공의 교수는 “나꼼수 쪽이 ‘생물학적 완성도’ 운운하며 논란에 대처하는 것은 사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공론장 자체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나꼼수의 팬덤화는 오히려 본인들 지지 네트워크 내부에서 출발한 비판적 의견을 ‘폴페미’(꼴통 페미니스트)라는 식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2년 2월 6일자 기사 참고.

상당한 권력이 된 데다 스스로 대안언론이라고 칭했던 만큼 미디어로서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팟캐스트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고 무책임한 폭로가 정당화될 수 없다(한국일보, 2012년 2월 4일자 사설).

<나꼼수> 현상이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치권과 기성언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와중에 발생한 ‘비키니 사진’ 사건은 <나꼼수>의 정체성과 방향성과 관련된 매우 첨예하고 치열한 논쟁의 장을 생성했다. 특히 ‘비키니 인증샷’을 보면서 “가슴 사진 대박이다. 코피를 조심하라”, “우리가 (그 여성의) 생물학적 완성도에 감탄한 것도 사실이고 신선한 (시위) 방법에도 감탄했다”와 같은 진행자들의 논쟁적인 발언은 견고한 지지세력과 강한 정치관념을 구축해가면서, 8개월여 이상 정치적 인 의제와 담화를 끌어가는 주요한 행위자였던 <나꼼수>가 직면한 위기의 발단이 되었다.

이 사안은 또한 다른 사회집단들로부터 쏟아지는 비판과 공격에 대해 진행자들이 특별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김어준이 ‘섹시한 동지애’나 ‘생물학적 완성도’와 같은 표현으로 자신들의 발언을 정당화·항변하면서²⁵⁾ ‘비키니 사진’ 논란으로 불거진, 젠더 코드와 페미니즘과 관련된 논쟁으로 그리고 <나꼼수>의 ‘B급 언어와 문화’에 대한 논쟁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꼼수>의 구성원들은 주어진 문제의 제기들에 대하여 어떠한 식으로든 응답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나꼼수>의 매체로서의 측면이나 정치적 영향력, 대안언론으로서의 기능 등에 대한 관심은 <나꼼수>의 품격이나 성적 윤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과 같은 관심들로 이동하는 면모를 보였다.²⁶⁾ ‘비키니 인증과 시위’ 사건은 <나꼼수> 진행자들의 고착된 정서나 의식으로부터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나꼼수>가 정치와 언론의 중심무대에 위치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풍자양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적인 매체로 기능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키니 인증샷’ 사안을 단순하게 우발적인 사안만으로 치부해버리기는 어렵다. 이 논쟁이 촉발되면서, <나꼼수>의 발언과 행동 하나 하나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부정적인 단면들을 공격하는 입장이나 <나꼼수>의 소위 ‘B급 문화와 언어’와 진행자들의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스타일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이로부터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의해 표출되는 감정적인 반응과 비판들은 <나꼼수>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자 난제로 부상한 것이다.

<나꼼수> 관련 보도에서 ‘비키니 사진’ 사건 보도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나꼼수>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비판들이 대거 표출되었다는 측면이다. 제도언론은 이를 노출·대립시키면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체-정치무대의 중심축을 차지하게 된 <나꼼수>에 대한 견제의식이나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강화시켜 드러내기도 했다. 이 국면에서 보수매체는 물론이고 진보매체 또한 견제 혹은 구별 짓기의 입장을 표출했다는 징후들을 일련의 ‘비키니 사진’ 사건 보도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25) 오마이뉴스, 2012년 2월 12일자, 김어준 인터뷰 기사 참조.

26) 사실 <나꼼수>는 언제든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내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머자 운영진으로 구성되었다. 김어준은 성적 자유를 주창하는 담론들을 오랫동안 이끌어 왔으며, 자신을 ‘B급 언어와 문화’에 속하는 문화생산자로 규정하면서 <나꼼수> 또한 자신의 이러한 정체성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조해 왔다.

4.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나꿈수현상”의 명암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팀은 <나꿈수>현상과 관련된 논점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숙고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콘텐츠와 언론보도 측면의 분석과 더불어, 학계와 언론제도 내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그들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비평을 수용하였다. 연구팀은 학술영역의 연구자 15명과 기자 5명 그리고 청년층 3명을 포함하는 총 23명의 응답자들에게서 <나꿈수>현상의 함의를 다루는 6개의 연계된 질문에 대한 답신을 받아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²⁷⁾

이후의 논의는 <나꿈수>를 청취하게 된 계기, <나꿈수>의 역할과 매개기능, 제도언론의 구성원들이 판단하는 <나꿈수>의 명암, 그리고 <나꿈수>의 방향성과 한계 혹은 역기능이라는 네 가지의 쪼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1) <나꿈수>를 찾아보게 된 과정과 청취의 경험들

다수의 응답자들은, <나꿈수>의 존재에 대하여 주변의 관심을 가진 지인들에게서 듣고 소개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응답자 다수의 경우, 입소문이나 SNS 공간을 매개로 동료학자나 학생들을 포함하는 지인들의 언급이나 “나꿈수”와 관련 논의들을 접하고, 이 프로그램을 찾아듣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검색을 하다가 우연하게 <나꿈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 경험에 관하여 사회현실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인 Y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첫인상은 난잡해 보이고 속칭 ‘쌈마이’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회차 별로 정리되었던 이슈들에 대해서는 꽤나 일목요연한 정리로 듣는 사람을 이해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나꿈수>를 듣기 이전에 ‘BBK’와 같은 경우, 말만 많이 들었었지... ‘MB가 나쁜 일을 했었다며’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부분 지금 20대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인터넷 강의, 즉 ‘인강’의 강사를 통해 정리를 ‘받으며’ 공부를 해온 경험이 있는 세대이기에 저 역시 마치 ‘정치판 과목 인강’을 듣는 기분이 들고는 했습니다. ‘재네는 나쁜 놈들이야.’ 수준에서 ‘재네는 이러이러 해왔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야.’ 정도로 옮겨가는 힘을 <나꿈수>가 전해준 것이죠. 무엇보다 통쾌했고 반가웠습니다.

Y 외에 이메일 질문서에 답한 응답자 상당수가 <나꿈수>가 준 인상과 호소력을 구성과 진행의 파격성 그리고 부분적으론 생경하지만 동시에 매우 신선한 콘텐츠의 제시에서 찾았다.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영역을 전공하는 연구자 I는 SNS 상에 오가는 많은 <나꿈수> 관련 논의와 언급들을 매개로

27)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30여 명에게 연구의 취지를 미리 설명하고 질문서를 발송했으며, 개인적인 사유와 일정상의 문제 등으로 답변을 주지 못한 이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명의 응답을 참고하였다. <나꿈수>의 역할과 이 프로그램이 매개하고 발휘한 역할과 한계에 관한 의견과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언론학과 미디어연구 영역의 학자들을 주로 섭외했고, 그 외 정치학과 사회학 분야의 연구자들도 접촉했다. 제도언론의 경우, 특히 영역과 역할이 겹치는 측면에 대한 언론장 내부자들의 솔직한 견해와 판단 혹은 “경쟁의식”을 듣기 위해서 기자들을 접촉하였다. 3인의 청년세대원은 <나꿈수>의 고정 청취자로 앞서 언급한 두 그룹의 응답과 일정부분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한 향후 진행할 청년세대의 <나꿈수>와 같은 팟캐스트 양식에 대한 수용과 관련된 일종의 파일럿(pilot) 연구를 고려하여 섭외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제도언론의 영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던 정치권력의 문제점과 비리를 간명하지만 직관적으로 풀어내고, 상세하되 강한 톤으로 조명해주는 <나꼼수>의 독특한 진행방식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²⁸⁾

트위터 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꼼수다>라는 제목과 가카로 통칭되는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 처음엔 조잡스러워서 듣지 않으려 했는데, 워낙 많은 이야기가 트위터에서 오가다보니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듣다 보니 기성 제도언론에서 접할 수 없었던 권력형 비리에 대한 내용, 혹은 접했다라도 큰 맥락에서 꿰지 못했던 내용을 쉽고 간명하며 직관적으로 설명해 매력을 느꼈습니다...현실세계의 정치가 <나꼼수>의 내용과 조응하며 진행되어 더욱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응답자들의 답변 속에서 고르게 등장했다. 한편 정치담론과 SNS 관련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온 정치학 전공자인 R은 <나꼼수>에 자신이 주목하게 된 이유를 특히 직업적인 차원의 관심사와 연결시켜가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꼼수 청취계기는 평소에 쓰고 있는 트위터 상의 팔로어나 지인들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또는 SNS를 통한 온라인 정치담론의 형성과 확산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그리고 학문적 관심도 나꼼수 청취의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시사 콘텐츠가 어떻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 의해 폭넓게 공유·확산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SNS와 정보의 사회적인 구성 등의 주제를 두고 연구해 온 S는 먼저 네티즌 혹은 시민으로서 <나꼼수>가 표출하는 “풍자의 시원함”과 더불어 주류언론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안과 쟁점에 대한 <나꼼수>의 해석과 대안적인 조명작업이 매우 큰 호소력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서 그 역시 팟캐스트라는 기존에는 말랑말랑한 소재를 특화시켜 전달하는 방식을, 대중이 적극적으로 찾고 소비하는 동시에 무거운 주제를 재기발랄하게 논하는 대중적인 매개의 양식으로 변화시킨 <나꼼수>의 역할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일환으로 매우 주목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저널리즘 영역의 주제들을 다년간 천착해 온 J는 <나꼼수>에 주목하게 된 이유를 “나꼼수의 성공을 통해 정치 담론의 다원화, 정파성의 강화, 정치의 오락화 등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물꼬가 트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유형의, <나꼼수>의 정치적인 담론들의 매개기능과 과거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던 “정치 예능물”로서의 신선함과 가능성에 대한 비교적 높은 평가는 연구진에게 답변서를 제공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의 글 속에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응답자들 중에는 이 프로그램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들어 온 이들과 더불어, <나꼼수>의 부상하는 정치적인 역할과 “이슈메이커”로서의 기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수용자의 대열에 동참한 이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등의 주요한 정치적인 국면에서 집중적으로 <나꼼수>를 듣게 된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전문가로 분류되는 답변자이건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답변자이건 간에 다수가

28) 그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정치로부터 비롯된다”는 김어준의 말은 많은 이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했던 상황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것은 충분히 평가해야하는 <나꼼수>의 긍정적 순기능입니다”라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나꼼수>를 듣게 된 연유를, 정권의 비리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에 관한 “고급정보의 제시”와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개연성이 느껴지는 풀이의 방식이나 직관적이지만 설득력이 가미된 관점의 제시, 그리고 재미있고 신랄하며, 정치적인 쟁점들을 유쾌하지만 신랄하게 풀어냄으로써 공감과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 찾았다.

정리하자면 <나꼼수>가 기성언론에 의해 좀체 시도되지 않던 정치적인 소재나 이슈를 선도적으로 발굴·조명하는 한편, 이를 대중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엄숙하지 않은 화법과 흡인력 있는 대화와 만담으로 끌어가는 측면을 다수의 응답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사유로 꼽고 있는 것이다.

2) <나꼼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팬덤현상이 주는 함의들

<나꼼수>에 대한 네티즌과 대중의 관심 속에는 “노사모 현상” 등으로 우리에게 이미 비교적 익숙한 “정치팬덤(화)”의 실천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입장이 개진되었다. 예컨대 2011년 11월 30일 여의도 공원에서 열렸던 수 만 명을 광장으로 이끌어낸 토크 콘서트의 경우나 이 행사를 전후해서 여러 차례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나꼼수> 4인방의 공연이 이를 예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나꼼수>의 팬 층을 구현하는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멤버들이나 김어준, 주진우 등의 팬으로 활발하게 온과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존재 또한 “나꼼수현상”을 온과 오프라인에서 끌어가는 주체들로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이미 존재해 온 온라인 공동체들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정치팬덤의 활동상과 부합하는 일련의 활동들을—정치권력에 대한 감시, SNS를 통한 선거독려, 정치적인 그리고 언론 관련 사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등의 활동과 유대 맺기를—수행하고 있다.²⁹⁾ 이 측면에 대하여 정치팬덤의 활동과 관련하여 온라인의 담론생산과 소셜미디어의 작동에 관련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해 온 R은 다음과 같은 상당한 설득력이 배어나는 관찰을 내놓았다.

<나꼼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뛰어넘는 정치조직화의 가능성도 보여줬다고 봅니다... <나꼼수>는 팟캐스트 방송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정치 풍자와 패러디에 기반한 정치시사 콘텐츠로서 광범위한 팬 층을 확보하면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스타로서 부각되었고...<나꼼수>를 비롯한 최근의 수많은 오프라인 콘서트 참가자들은 마치 하나의 팬으로서 음악 콘서트나 공연을 보러 가는 기분으로 정치적인 이슈에 접근하고 정치적인 담론을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치의 팬덤화” 현상은 또한 “팬덤의 정치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더 지켜보아야할 사안이지만, <나꼼수>의 팬들이 보여주는 현실참여와 정치적인 활동상 속에는 기존의 온라인 공동체들이 대통령의 탄핵 건이나 촛불국면에서 표출되었던 움직임들과 겹치거

29) <나꼼수> 4인방 중의 한 명인 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인 <미권스>는 회원 수가 17여만 명에 달하며 온과 오프라인을 매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다양한 실천을 펼치고 있다. 한국일보, 2012년 1월 26일자 기사 참조 또한 <나꼼수>의 대중적인 관심과 연계되는 SNS 영역의 단면을 잠시 살펴보면, 정 전의원의 트위터 팔로어는 28만여 명에 이르고, 그의 구속과 관련한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김정일 사망 관련 페이지 뷰를—약 680만 회—훨씬 뛰어 넘는 1000만 회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사IN, 225호, 2012년 1월 7일자 기사 참조.

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요소들이 상당수 발현된다(송경재, 2005; 이광석, 2009; 임종수, 2011 참고). 즉 온라인에서 생성되는 감정과 상상력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동반하는 담화와 관점의 교환이 오프라인에서 결집되는 행동으로도 이어져온 일련의 사례들을 나꼼수현상에서도 상당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국면에 따라 부침을 일정하게 겪기도 한 이러한 “사이버항의”(cyberprotest)와 오프라인에서의 조직화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는, 이미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탈전통화되고 네트워크화된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상당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 정권에서 발생하는 언론의 문제적인 현실과 정치적인 압박에 의한 길들임은 <나꼼수>와 같은 “예외적이고” 새로운 포맷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콘텐츠의 역량과 가치를 키우는 데 분명히 일조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다수의 사회적 주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나 규제 하에 있는 주류 미디어가 아닌 인터넷이나 팟캐스트 혹은 SNS와 같은 대안적인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다수의 시민들은 인터넷을 포함한 뉴미디어 공간에서 정치적 의견들을 공유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과 시민들 사이의 소통을 비교적 폭넓게 수행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결집시킴과 동시에 정치권력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련의 활동과 회합(associations)들을 형성해왔다. <나꼼수>는 바로 이 같은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리와 정치적인 약점들을 폭로하면서, 반이명박의 정치적 정서들을 자극해 온 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 연구팀의 질의서에 답한 현직의 기자 G는 “정권의 가장 치졸한 치부를 기성언론에서 볼 수 없었던 적나라한 방법으로 드러내면서 [<나꼼수>가]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온 것”이라는 관찰점을 제시했다. 큰 맥락에서 <나꼼수>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적인 울분과 실망감, 그리고 비판과 항의를 결집시킨 대표적인 매개자였고, 구체적인 분노의 지점들을 표출하는데 기여한 촉발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꼼수>의 지지자들 중의 일부와 팬덤 속에 과도한 진영논리와 성찰적이지 못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측면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최근에 트위터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불거졌던 관련 사례를 잠시 돌아보자. 정봉주 전 의원의 BBK 발언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에 온라인의 대표적인 논객인 진중권씨가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정 의원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는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안에 대해 한 대학의 법학전공 교수가 진 씨의 입장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이러한 반응은 트위터의 공간에서 한동안 매우 큰 쟁점을 생성해냈다. 이 과정에서 <나꼼수>의 일부 팬들이 이 교수의 지적을 탈맥락적으로 가져다가 트위터의 공간에 올리거나 진중권씨를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확산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나꼼수>의 일부 팬이나 열혈 지지자들에 의한 “성찰적인 문제의 제기”가 무시되고 극단적인 편 가르기의 형태로 표출되는 징후들 역시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³⁰⁾

3) 제도언론 내 종사자들의 반응

연구팀이 접촉한 기자들 역시 학계의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나꼼수> 현상에 관해 상당히 큰 관심을 표출했으며, 특히 기성언론의 취재와 보도양식이 끌어내지 못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과 <나꼼수>가 생성한 논쟁과 담론들에 주목했다. 특히 기자들은 팟캐스트라는 신종의 스토리텔링의

30) 한겨레. 1월 16일자 기사 참조.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나꼼수>가 제공하는 매우 현장감 있는 이슈의 탐구와 기성언론의 제도 혹은 규범 속에서는 허용받기가 매우 쉽지 않은 ‘개입적인’ 스탠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자인 F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성 언론이 일종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거나 법적 대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지 못하는 주장을—즉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경우 등—자유롭게 할 수 있는,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이 <나꼼수>의 유통 기반이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 <딴지일보>라는 매체를 통해 쌓은 경험으로 대중의 코드를 잘 읽어낼 줄 아는 김어준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지나치게 진지한 것을 싫어하며 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젊은 층의 기호와 맞아떨어졌다.

동시에 <나꼼수>에 대한 네티즌과 시민들의 커다란 관심에 비추어서, 기성언론의 한계나 대중과의 소통에 크게 성공적이라 하기 어려운 제도언론의 현 상황을 자기반영적인 방식으로 돌아보는 견해를 제시하는 답변들도 나왔다. 앞서 언급한 기자 F는 “[나꼼수 현상을 접하면서] 기성언론의 기사 서술 방식이 불친절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반성을 한다. 물론 매일 매일 지면을 맡다보면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나꼼수>와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독자들이 훨씬 쉽게 기사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기자들은 때로는 대안적인 매체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종 정치토크와 풍자가 결합된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 <나꼼수>에 대해—즉 복합적으로 발휘되는 <나꼼수>의 정체성과 방향성에—대하여 일정한 주문과 더불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직의 기자인 G는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종의 비교론적인 관점으로 풀어냈다.

<나꼼수>의 장점인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 표현의 자유분방함은 알려나가되 나꼼수가 정치풍자 토크쇼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뉴스공급매체인지 자기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내곡동 사저와 같은 팩트에 기반한 일종의 뉴스공급매체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이어나가려면 팩트의 발굴과 취재,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나꼼수>가 분명 대안매체로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성매체의 언론노동자에게 자성의 계기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지만, 미디어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나꼼수>와 같은 대안매체의 육성으로 치환하려는 발상은 위험할 수도 있다.

역시 현업의 기자인 Z는 <나꼼수>의 역할에 일정한 순기능과 의의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진보)언론의 역할에 대한 자기반성과 더불어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제도의 구성원으로서 매체의 종사자들이 놓인 상황을 현실론으로 풀어내면서, 그간에 나꼼수현상과 맞물리면서 표출된 제도언론에 대한 비판이나 공방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나꼼수현상으로 인해] 종이신문 종사자로서 미래나 대중(신문독자)의 향방에 대해 고민하게 되죠. 진보언론들이 오랫동안 진지하게, 특히 이명박 정권이후 여러 정치사회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특종도 여럿 써왔지만, <나꼼수> 한방에 “입진보”로 전락하거나, 평소에 비판도 못하던 것들이 어찌고저찌고 하는 비난을 SNS에서 접하게 되면, 저건 팩트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소위 진보언론도 제 역할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자기반성과 고민을 하게 되는거죠... 정치사회면을 <나꼼수> 혹은 만지일보식으로 발랄 명랑하게 쓸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저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면서 대중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불편부당 정도를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직 기자인 Q 역시 이미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목한 <나꼼수>의 역할에 대하여 일정한 인정과 공을 부여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이 지닌 한계와 기성언론과의 차별점, 그리고 (진보)언론 및 세력의 역할을 긴 호흡으로 강조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나꼼수> 성공 이후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그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포맷의 차용이 동일한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꼼수>도 지금의 소재와 문법 안에서 자기완결적인 주기곡선을 그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나꼼수> 자체보다는 정치사회 제 세력이 ‘나꼼수 현상’을 어떻게 참조해 자신의 실천적 활동 방식을 어떻게 미래화할지 탐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의 논의와 일정 부분 겹치는 <나꼼수>의 미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기성언론과의 긴장 혹은 경쟁이라는 문제를 대조하고 맥락화시켜 논하면서, 저널리스트 출신의 언론학자인 A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꼼수>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크게 두 가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성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나꼼수>의 존재를 부각하는 지지의 경향이고, 둘째는 <나꼼수>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비판적 지지 혹은 비판 경향이다. 나는 <나꼼수>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꼼수>의 구성적 형식인 폭로, 야유, 욕설, 비방 등의 특징은 그 자체로는 미학적으로 저질스럽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게 의미를 갖는 것은 당대적 역사적 맥락에서, 즉 기성언론의 문제를 지시하는 정치적 지향아래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꼼수>의 존재방식, 나아가 평가는 반드시 기성언론, 나아가 한국사회의 특정 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직의 중견 기자이자 다수의 특집기획물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B는 <나꼼수>가 개척하고 자신의 자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청년층 수용자들의 존재에 특히 주목한다. 그는 기존의 언론매체들이 이들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청년세대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정치 관련 보도와 콘텐츠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언론의 현실과 문제점을 솔직한 톤으로 지적한다.

기자인 저에게 <나꼼수>가 던져준 교훈 또는 메시지는 간명합니다. 한국에는 광범위한 ‘정치뉴스 소비자’가 존재하며, 특히 10~30대에 이르는 청년층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갈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기성언론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정치적 잠재의식을 꿰뚫어보면서, 이면·맥락·관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역동적인 정치 보도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나꼼수>가 일세를 풍미한 다음에도 기성 언론이 이 대목을 절치부심하여 수준 높은 정치보도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됐건 그런 매체가 등장하여 ‘정치뉴스 소비자’를 ‘씩씩이’하는 상황은 기성 언론인 모두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전·현직 언론의 종사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자면, 이들 다수는 매체 내의 구성원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겨주고, 특히 문제적인 정치현실을 재검토하고 담론화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제공한 <나꼼수>의 역할과 의의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동시에 보도와 관련한 특정 소재의 발굴과 제시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규준과 틀 안에서 활동해야하는 조건 속에서 활동해야하는 언론의 내부자로서, <나꼼수>에 대한 비판과 차별점을 조목조목 설파하기도 했다.³¹⁾

한편 <나꼼수>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느슨한 차원의 인정과 비판적인 지지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긴 하지만 생산의 규범을 적정한 선에서 따르는 매체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고 판단하거나, 언론매체이기보다는 B급 정서와 일종의 “해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향후 대안적인 매체 혹은 대중적인 저널리즘의 양식에 관한 또 다른 연구가 마땅히 필요하지만, 연구팀의 질의에 응한 기성언론 내부의 저널리스트들의 반응은 <나꼼수>를 향후 제도언론이 지향하거나 전향적으로 수용할 양식으로 고려하는 수준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연구팀이 섭외한 제도언론 내부의 기자들은 나꼼수현상이 자신들에게 제공한 “교훈”이나 <나꼼수>가 촉발한 제도언론의 문제점과 향후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서 진솔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전망을 내놓았다. 즉 <나꼼수>가 개척한 새로운 혹은 대안적인 스타일의 정치비평적인 기능과 관습적이지 않은 방식의 대중에게 말 걸기를 시도하는 실천이 지닌 역할과 역량을 체감하면서, 반성과 더불어 일정한 거리두기와 차별화된 전망을 제시했다.

4) <나꼼수>의 문제점 혹은 역기능

<나꼼수>가 지양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팀의 질의서에 답한 응답자들은 몇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공유되는 지적과 제언을 제기했다. 먼저 문화연구자인 K는 <나꼼수>의 긍정적인 역할이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나꼼수>가 제시하는 정보와 ‘말’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태도를 유지해서, 진행자들이 한 ‘말’에서 부당하게 관용적이거나 아전인수식 반복이나 오용, 혹은 부정확함이 없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적인 신뢰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진솔했듯이 언론제도의 전반적인 파행 속에서, 굳게 구축된 보수언론의 편향된 스탠스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꼼수>가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정치적인 견해와 이슈의 (재)조명과 (재)발굴을 포함하는 활발한 담론작용과 수용자들과의 연대감을 매우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관심을 받을만한 측면이다. <나꼼수>가 매우 주목할 만한 정치사회적인 영향력과 담론의 촉발작용을 발휘하고

31) 이를테면 언론인인 Q는 <나꼼수>의 의의와 동시에 한계를 다음과 같이 풀어냈다. “주류 담론의 허구성을 폭로했을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함으로써 기존 담론장의 특권세력과 그들의 네트워크 및 연결고리를 취약하게 만든 건 그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과입니다. 현실정치 무관심층이 일정 수준으로 정치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꼼수>는 비정규 게릴라적인 활동방식으로 현실 제도정치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의 온건한 비판세력들과 정치적 정체성을 동일시함으로써 형식(급진)과 내용(온건)의 불일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꼼수>가 강력한 대중적 소구력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대중의 정치성을 그 지점에서 멈추도록 하는 구심력으로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은 스스로 각성할 것이며, <나꼼수>는, 그리고 그 주체는 각성한 대중의 향후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있다는 점은, 공영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생태계의 상황이 문제적이라는 인식에 비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이는 <나꼼수>에 대한 예단된 혹은 의도된 차원의 문제제기를 경계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역할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그리고 성찰적인 방식으로 읽어내고, 동시에 균형이 실린 비평과 자기성찰적인 판단을 제기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된 비판적인 문제의식으로, 문화연구자인 S는 <나꼼수>의 성공 뒤에 간과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측면 혹은 독선이나 “진영논리”에 빠지는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칫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올바르다’라는 자기만족 혹은 자기정당화에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상상력(소설)이 마치 진실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꼼수>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힘의 조율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신의 힘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제언을 전해왔다.

한편 <나꼼수>의 연원과 장르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R은 제도언론이 제기하는 <나꼼수>의 “선정성” 혹은 “편향성”에 대해 응답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변호의 논리”를 제시했다.

<나꼼수>의 문제점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컨대 ‘비이성적인 인격비하’, ‘편향된 여론선동’, ‘걸리지 않은 잘못된 정보의 유포’, ‘경박한 황색저널리즘’ 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 않는 편입니다. <나꼼수>는 대통령 권력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을 서슴치 않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한 정치콘텐츠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특정한 명예훼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태롭게 특정 인사를 비난하지만 그러한 신랄하고 노골적인 비판기능이 없다면 <나꼼수>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널리즘 영역의 전문가인 J 역시 <나꼼수>의 역할과 편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나꼼수>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합니다. 나꼼수는 말 그대로 팟캐스트이며, 만드는 이들의 지향에 따라서 무수한 변형태가 생길 것입니다. 정치사회적 규범을 굳이 강하게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팟캐스트도 계속 만들어 질 것입니다.” 보수언론과 지식인 그룹에서 지적하는 과도한 정파성과 팩트와 허구를 오가는 특유의 재현방식에 대하여, 응답자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방향성을 수정해야한다는 입장보다는, 역할이 탄력적이고 뚜렷한 팟캐스트 정치콘텐츠로서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효능을 제도나 규범적인 수단으로 묶지 않고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³²⁾

그럼에도 R은 향후 <나꼼수>가 요동을 칠 정치적인 국면에서 향후 경계해야할 부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망과 제언을 제공했다.

앞으로 <나꼼수>는 총선, 대선 등 중요한 선거 정국에서 여론형성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수많은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꼼수>가 불필요한 정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정치적 쟁점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32) 하나의 참고자료로 연합뉴스가 휴대전화 사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팟캐스팅 관련 조사에서도 <나꼼수>의 열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52.8%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12.1%)보다 많이 앞섰으며, 향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도 52.8%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18.5%)을 크게 앞섰다.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비판과 비난과는 다른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연합뉴스, 2012년 1월 26일자 기사 참고.

그의 입장은 <나꼼수>의 정체성과 특성을 경직되지 않은 방식으로 인정하면서도, 대중과의 소통의 역할이 확연하게 커지면서, 영향력 있는 소통의 양식이자 대중동원의 한 효과적인 매개체로 등극한 이 프로그램의 구성원들이 숙고해야할 책무감과 자기성찰의 문제를 강조했다.³³⁾ 한편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P는 <나꼼수>의 제작진이 돌아볼 문제점들을 보다 다면적으로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나꼼수>의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노선의 협소함 혹은 목적성의 한계에 대해 강한 논조의 비판을 제시했다.

[나꼼수의] 긍정적 역할은 당연히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에의 열망과 지배층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켜주고 그 목소리를 사회에 들리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대중들의 창의적인 정치에 대한 열망을 정권 교체를 위한 단순한 투표행위로 환원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태생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또한] 나꼼수의 남성중심 주의적인 ‘건강하지 못함’ 혹은 대중들의 원한의 감정에의 비이성적 호소도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론학자인 X는 정치권력의 권위와 오만을 해체하는 노력을 통해서 <나꼼수>가 성취한 공을 상당히 인정하면서도, 팩트와 취재력이라는 측면에서 <나꼼수>가 지닌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소재와 팩트의 발굴과 제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렴창구”의 부족함이 <나꼼수>의 역량이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데 고려해야할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나꼼수는 정치권력에 대한 권위를 풍자를 통해 무너뜨리고 시민들이 용기 있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하는 자극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동반되지 않고 의견의 부각만으로는 이 미디어를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결국 다양한 제보가 중요할 텐데, 현재 나꼼수의 유통채널에는 수렴창구가 부족한 상태라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더 두고 볼 문제입니다.

한편 언론학자 I는 <나꼼수>의 효용과 기능을 현 단계 한국사회 언론장의 현실과 정치상황의 국면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풀어내며, 장기적인 전망을 담은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공했다.³⁴⁾

언론이 제 기능을 회복·수행할 때 <나꼼수>의 영향력은 감퇴할 것입니다... 정당과 제도정치가 직접

33) <나꼼수>의 구성원인 김용민 PD는 편향성 관련 질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는 편파방송임을 누누이 밝혀왔다. 그렇다고 청취자를 선택하거나 계몽하려는 게 아니다. 청취를 원하는 사람이 다운로드해 방송을 듣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청취자와 생각을 공유하려는 것이다. 방송 내용의 진위와 편파성 여부를 가리는 건 청취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우리 국민은 스마트해서 무분별하게 추종하거나 허술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 신동아, 2012년 1월호 (628호) 인터뷰에서 발췌.

34) 온라인과 IT 방면의 전공자인 E 역시 I와 비슷한 관점의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저는 <나꼼수>에 열광하지 않으나 그 한계 안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권력의 비상식을 비틀고 이를 대중과 공유하며 신나게 쫓지 않고 입으로 막말로 뱉는 카타르시스의 정치는 국민 정신건강상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적 장의 개선 없이 계속해서 바깥에서 맴돈다면 그것 또한 소모적이고 기운이 빠지지 않겠나 봅니다. 극도로 정치적 퇴행이 거듭된다면 <나꼼수>는 당분간 인기몰이를 하겠으나, 올 선거 이후 변화를 희망하고 제도권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은 더욱 현실적이 되면서 이제 오히려 정론을 행하는 <뉴스타파> 류의 대안언론에 더 의지할 것이라 보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꼼수>가 유난히 인기를 끈 것이겠지요...<나꼼수>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도 <나꼼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정보를 습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나꼼수>와 같은 정치포자 콘텐츠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정치에 손쉽게 이야기하는 요즘의 풍경이 반갑지만,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나꼼수>가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입장입니다... <나꼼수>에 대한 기대가 커갈 수록, 우리 사회의 언론과 정치의 후진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나꼼수>가 아니라 <나꼼수> 이외의 나머지 사회적 영역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정당과 언론기능의 파행과 비정상성을 염두에 두고 I와 다른 응답자들이 제기하는 비판적인 전망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공감과 더불어 고심할 거리들을 제공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도화된 언론장 내의 보수언론은 나꼼수현상이 불거지고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확산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무시와 회피의 입장을 드러냈고, <나꼼수>가 생성·견인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정치적인 합의와 동력이 명백하게 형성되면서, “괴담”과 “음모론”의 “선동적인” 진원지이자 “품위 없고” “경박한” 프로그램으로, 또한 “악성댓글의 종합상자”로 <나꼼수>를 질타하고 비난해왔다. 언론의 동학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나꼼수>와 같은 새롭게 부상한 미디어양식의 가치와 역할을 애써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영역과 힘을 계속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특정한 방향성을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여당과 권력 내 핵심적인 인사들의 <나꼼수>에 관한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⁵⁾

5. 결론을 대신하여

이른바 “영리하고” 현실의 부조리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다수의 수용자들은 기성언론에 의해 제대로 조명되고 있지 않은 정치와 정책 측면의 이면과 무리수들, 그리고 정치권력의 문제들을 거칠지만 날렵하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짚어내고 쟁점화하는 <나꼼수>에 큰 지지를 보내왔다. 반면 <나꼼수>의 마초적인 정체성과 거칠고 정체되지 않은 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음모론적 시각에 대한 인식의 차이들로 인해, 상당한 균열과 비판의 지점들이 불거진 것도 사실이다. 이는 향후 <나꼼수>의 공과와 공공영역 혹은 대중적인 영역에서의 활동과 역할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전망과 더불어, 상당한 논쟁과 갈등 그리고 긴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재연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특히 2012년 4월 총선 국면을 전후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용민의 과거 발언들과 <나꼼수>의

35) 예시를 들어보자. 2011년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소관 201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꼼수현상과 관련된 흥미로운 발언들이 나왔다. 최시중 당시 방통위 위원장은 “<나는 꼼수다>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방송) 그 자체가 꼼수다”라고 답했다. 여당의 이철우 의원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특별 단속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단속할 곳은 없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규제할 수 있는) 법에 대해 박만 (방통심위위원회) 위원장이 더 검토를 하라”라는 주문을 했다. 미디어스, 2011년 11월 2일자 기사 참조. 한편 KBS에 근무하는 한 기자는 언론에 보내 온 익명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에 KBS 근처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란다. 한 후배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KBS)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KBS 기자 수백 명이 주진우 한 명을 못 당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꼼수다>에 나오는 시사HN 주진우 기자가 ‘내곡동 사건’을 특종 보도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다.” 미디어스, 2011년 10월 31일자 기사 참조.

“저질적인” 언어사용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나,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패배의 원인을 김용민에게서 찾으려는 보수나 진보진영 일부의 공통적인 관점의 등장, 그리고 <나꼼수>의 정치적 영향력의 하락과 소멸을 예측하는 다양한 담론들의 부상은, <나꼼수>가 대중적인 수용의 대상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나꼼수>를 비난하고 공박하는 집단들이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 걸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든다.

그러나 보수언론을 포함한 일련의 세력들에 의해 제기되는 <나꼼수>에 대한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비판은 <나꼼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나꼼수>가 현재 한국 사회의 언론 지형이나 뉴미디어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나 쟁점들을 일으키거나 일차적으로 이들 사안들과 구결된다는 조급한 ‘환원주의’로 빠질 수 있다. 물론 <나꼼수>가 비판과 일정한 위기를 맞았던 ‘비키니 시위’건이나 총선 전후에 불거졌던 “막말과문” 등의 국면에서, 비판할 수 있고, 비판받을만한 측면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나꼼수>식의 ‘B급 폭로, 풍자, 고발 혹은 비판’을 지향하는 독특한 정치시사콘텐츠의 역할이나, 이 프로그램이 견인했던 대안적인 정치문화의 가능성들을 다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언론 규범이나 정형화된 형식체계 안에 가두려 하는 시도는 또 다른 압박과 혼용작용으로 작동할 수 있다. 수많은 매체 혹은 소통의 양식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대상들을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이론이나 규범만으로 재단 혹은 예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꼼수>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들에게 단일한 저널리즘의 운용 원칙이나 일종의 엄숙주의와 제도화된 규범을 설정·요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과도하고 일방적인 비판만을 가하는 행위는 한편으로는 제도언론의 문제점과 은밀한 편향성을 가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정치권은 물론이고, 진보진영에 속하는 이들도, 세대를 달리하는 다수의 사회적 주체들이 왜 <나꼼수>에 열광해왔고, 그들이 일상 속에서 <나꼼수>가 제기한 쟁점과 이슈들을 담화와 정서적인 공감의 매개체로 삼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개방된 자세나, 기존의 관성을 탈피하는 발상의 전환을 크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또 다수의 신문과 방송이 권력에 순치된 모습으로 정치권의 동향과 정부의 정책들을 비판·견제하고, 사회적으로 긴요한 사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여론과 민의를 전달하는 데 매우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역할과 더불어 책임의 방기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나꼼수>에 보내는 수용자들의 (비판적인) 지지나 기대를 맥락화시켜 이해하려는 자세 또한 부족하다.

물론 <나꼼수>가 앞서 논했듯이 일정한 한계와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향후 언론과 정치영역이 보다 정상화될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관심과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앞서 자신들의 소견과 관점을 밝힌 응답자들의 진단 속에서도 여러 차례 공명이 되고 있지만, <나꼼수>가 짧은 시간 내에 수 백 만의 수용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와 매력성은, 이러한 제도언론의 무력함과 순응주의 그리고 문제투성이의 정치권력의 오만함과 결코 분리시켜 논할 수 없다.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한국사회 주요 부문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균형적이고 다면적인 방식으로 조명해주는 언론의 역할과 소명의식을 회귀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고 있지 않으며, 현실의 문제들과는 겉돌고 동시에 소통과는 거리가 먼 수단화된 정치적인 언설들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 매우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안적인 언론과 감성의 표출공간을 찾는 현상들이 부각된

다는 의견에 다수의 연구자와 지식인들이 공감할 것이다. 결국 나꼼수현상은 이러한 언론과 정치권을 가로지르는 문제점과 역기능들을 매개로 부상하고 영향력을 넓히게 된 독특하고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비정상성과 비리, 의혹의 지점들을 구체적인 팩트의 제시와 추적, 독설과 패러디의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해내는 뛰어난 콘텐츠로 예리하게 파고드는 <나꼼수>와 같은 정치콘텐츠의 역할과 영역은 계속해서 대중적인 호응과 관심을 받으면서 기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보인다.³⁶⁾ 그런 의미에서 <나꼼수>의 제작진들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유효기간이 지나고 막을 내린다 해도, 또 다른 비슷한 구성과 역할을 시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총선과 대선을 함께 맞는 2012년 권력 변환의 길목에서, <나꼼수>와 같은 새롭게 부상한 정치콘텐츠들이 어떠한 역할과 변화 혹은 진화의 궤적들을 그려낼지 자못 궁금해진다.

연구팀은 지난 일 년 간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큰 합의와 주목 그리고 논쟁을 불러 온 <나꼼수>의 역할을 몇 가지 방향과 측면에서 맥락화시켜 조명하고자 시도하였다. 학술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시도되는 단일한 방법론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텍스트분석과 기사분석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를 혼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구성과 역학의 특성을 보이는 나꼼수현상에 대한 일정한 정의내리기와 진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나꼼수현상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개념과 이론적인 논의에 노력과 관심을 집중하지는 않았다. 사실 <나꼼수>와 같은 새롭게 부상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정치적인 담론과 문화적인 트렌드를 치열하게 그리고 논쟁적으로 형성한 현상을, 치밀하지만 현실접합성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개념들이나 기존의 미디어 관련 이론들에만 의지하면서 논의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부상한 지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팟캐스트라는 신생 커뮤니케이션양식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이기에, 축적된 학술적인 자료에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나꼼수>의 정치사회적인 역할과 새로운 콘텐츠로서의 특성을 진단하는데 주력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 연구가 수행한 <나꼼수>를 반복적이고 꾸준하게 청취했던 전문가 집단과의 인터뷰는 관점의 교환과 문제의식의 점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구되지는 못했다.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 미디어나 문화연구자, 인문학과 사회과학 영역의 전문가, 언론인, 청년층 등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보다 차별화되고 심도 깊은 인터뷰를 고안하고 실행하고자 했지만, 시간적인 제약과 섭외의 어려움으로, 이 또한 애초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향후 보다 활성화되고 상호교섭적인 질적인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혹은 수용자연구를 시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나꼼수> 등장 이후 제도언론이나 학계의 전문가들이 주목하지 않는 동안에 다수의 수용자들의 관심을 얻게 되고, 주요 정치적인 일지에서 발휘한 역량과, 이른바 ‘비키니 논란’과 출연자인 김용민씨의 총선 참여와 ‘막말발언’이 가져 온 쟁점과 이 프로그램의 명과 암을 국면적으로 보다 정치하게 조감하거나, <나꼼수>와 언론 그리고 수용자들이 형성하는 동학을 다면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작업은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될 듯하다.

36) 동료 문화연구자인 이광석 역시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 느끼는 시민들의 허기가 제도정치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나꼼수>를 통해 카타르시스적으로 엉뚱하게 해소되는 현실이 아쉽지만, 상실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제2, 제3의 <나꼼수>식 풍자가 계속 등장할 것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광석, 디지털 통치, 스마트에서 다시 철권으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40호, 2012년 1월호에서 발췌.

이 같은 연구의 한계들을 인지하면서, 향후 보다 범주가 크고 다양한 갈래의—예컨대 조밀한 생산자 연구나 경험연구와 같은—방법론을 채용하는 후속 연구들이나, <나꼼수> 이후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팟캐스트와 대항적인 정치 언론들에 대한 분석의 작업들이 본 연구가 놓친 지점이나 한계를 보완해주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강장목 (2009). 『뉴미디어와 소통의 정치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성환 (2012). 『나꼼수로 철학하기』. 서울: 바다출판사.
- 김용민 (2011). 『나는 꼼수다 뒷담화』. 서울: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김어준 외 (2012). 『나는 꼼수다』. 서울: 시사IN북.
- 나은경 · 이준웅 (2008). 『덧글문화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문강형준 (2012).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서울: 이매진.
- 미디어공공성포럼 엮음 (2009). 『미디어 공공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경수 (1993). 정치현실의 풍자와 장르 페로디적 성격. 『시와시학』, 12호, 231~235.
- 송경재 (2005).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2호, 423~443.
- 이기형 (2004). 『인터넷 미디어: 답론들의 ‘공론장’인가 ‘논쟁의 게토’인가?』.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광석 (2010). 『사이방가르드: 개입의 예술, 저항의 미디어』. 서울: 안그라픽스.
- 이광석 (2009). 온라인 정치 페러디물의 미학적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8호, 109~134.
- 이동후 (2004). 미디어 생태학적 통찰력에 관한 시론. 한국방송학회 2004년 봄철 정기학회 발제문.
- 이준웅 (2011). 『말과 권력: 레토릭에서 의사소통 민주주의로』. 서울: 한길사.
- 이택광 (2011). 『이것이 문화비평이다』. 서울: 자음과 모음.
- 이항우 (2010). 웹 2.0, 집단지성,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86호, 345~352.
- 임종수 (2011). 촛불과 미디어: 컨버전스 미디어 양식과 개인화된 대중의 출현. 『현상과인식』, 35권 1/2호, 97~124.
- 장우영 (2005). 『인터넷 규제와 거버넌스의 정치』. 서울: 한국학술정보.
- 조희정 · 강장목 (2008). 네트워크 정치와 온라인 사회운동: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3호, 311~332.
- 최강욱 (2009).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서울: 갈리온.
- 한국언론학회 엮음 (2011). 『한국사회의 소통위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언론학회 엮음 (2011). 『한국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Axford, Barrie & Huggins, Richard. (Eds.). (2001). *New Media and Politics*. London: Sage Publication.
- Bakardjieva, Maria. (2005). *Internet Society: the Internet in Everyday Life*. London: Sage.
- Barney, Darin. (2004).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Polity.
- Bennett, Lance & Entman, Robert. (Eds.). (2001). *Mediated Politics: Communication in the Future of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stells, Manuel. (Ed.). (2004).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Edward Elgar.
- Crossley, Nick & Roberts, Michael. (2004). *After Habermas: new perspectives on the public sphere*. London: Blackwell.

Curran, James. (2002). *Media and Power*. NewYork: Routledge.

Donk, Wim van de, Loader, Brian, Nixon, Paul, & Rucht, Dieter (Eds.). (2004). *Cyberprotest: New Media, Citizens and Social movements*. NewYork: Routledge.

Erisen, Erik & Weigard, Jarle. (2003). *Understanding Habermas: Communicating Acting and Deliberative Democracy*. New York: Continuum.

Jenkins, Henry & Thorburn, David. (Eds.). (2003). *Democracy and New Media*. Cambridge: MITPress.

Kozinets, Robert. (2010). *Netnography: Doing ethnographic research online*. London: Sage.

McCauchey, Martha & Ayers, Michael. (Eds.). (2003). *Cyberactivism: Online Activism in Theory and Practice*. NewYork: Routledge.

McGuigan, Jim. (1996). *Culture and The Public Sphere*. London & NewYork: Routledge.

Robbins, Bruce. (Ed.). (1993). *The Phantom Public Sphere*.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부록: 서면 인터뷰 대상자 명단

제공자	연령	직업	전공영역/취재분야	제공자	연령	직업	전공영역/취재분야
A	48	교수	저널리즘, 미디어비평	N	48	교수	정치학, 온라인의 동학
B	42	기자	탐사보도	O	49	교수	문화연구
C	40	연구원	미디어 정치경제학, 문화연구	P	25	대학원생	영상커뮤니케이션
D	46	교수	정보사회학	Q	43	기자	국제부
E	43	교수	IT와 정보학, 문화연구	R	47	교수	정치커뮤니케이션
F	32	기자	경제부	S	41	교수	문화연구
G	46	기자	국제부	T	29	PD	방송편성
H	43	교수	문화연구, 대중문화	X	45	교수	뉴미디어, 미디어 정책
I	36	연구원	문화연구, 대중문화	Y	27	대학원생	법학
J	43	교수	저널리즘, 정치커뮤니케이션	Z	40	기자	문화부
K	47	교수	문화연구				
L	46	교수	정치학				
M	45	교수	미디어 산업				

(투고일자: 2012. 3. 1, 수정일자: 2012. 5. 3, 게재확정일자: 2012. 5. 4)

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f <I am a Weasel> and Its Implications

Kee-Hyeung Lee* · Young-Joo Lee** · Kyong-Ah Hwang*** ·
Zi-Yeon Chae**** · Hye-Young Cheon***** · Sook-Young Kwon*****

<Nanen Ggomsuda or *I am a Weasel*> is a radically different communicative form in several ways. It innovatively utilizes podcast, a kind of internet radio format while dealing actively with thorny political issues and scandals in much direct and challenging fashion. Also this program adopts politically-charged parody, sharp critique of current socio-political issues, as well as lively dialogues through which the program provides both acute political awareness and entertainment. As a new kind of talk show and an alternative media form, this program has gained much popularity and attention since its appearanc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journalistic fields and public spheres are in disarray through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wrought with fierce partisanship and political polarization, the role of this program needs to be examined both cautiously and contextually. This study aims to shed some lights on the multifaceted and much contentious role of <Nanen Ggomsuda or *I am a Weasel*> through a textual reading and discourse analysis, as well as email interviews.

Keywords: I am a Weasel, the socio-political roles of podcast, wild publics, contextual analysis

*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 Senior Research Fellow, The Korea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Kyung Hee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Kyung Hee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Kyung Hee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Kyung Hee University